

‘2030 여성청년’ 그들은 누구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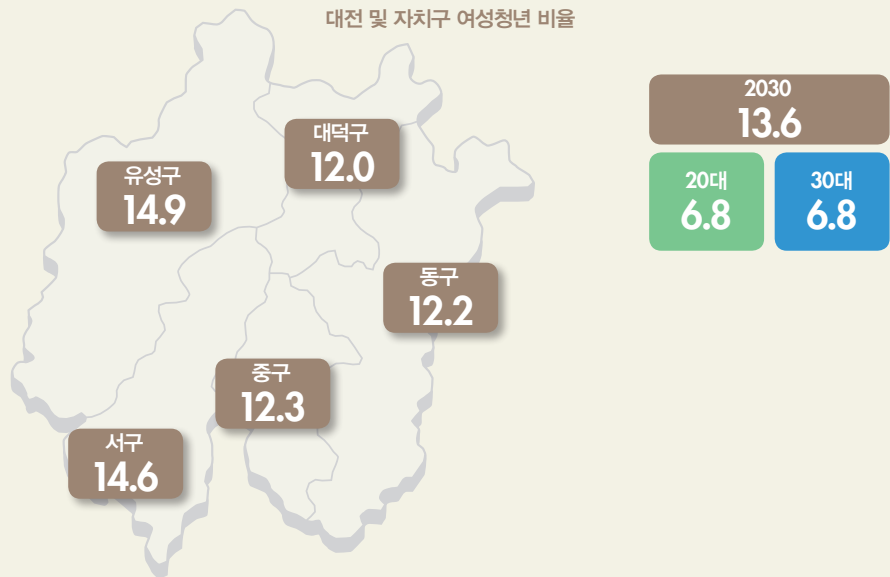
청년이 화두다. ‘88만원 세대’, ‘3포 세대’ 등 청년의 불안정한 삶을 지칭하는 용어들이 급속도로 퍼졌고, 청년문제가 더 이상 개인 문제가 아닌 국가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되어졌다. 그러나 청년 안에 다양한 집단이 존재하는 것을 간과하기도 한다. 청년문제를 이야기할 때 청년으로 호명되는 집단은 대부분 남성청년이다. 청년문제에 성별이라는 특성을 교차해 살펴봐야 하며, 배제된 여성청년을 청년담론에 끌어들이고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전시 2018 사회조사를 활용해 대전에 사는 ‘2030 여성청년’은 누구인지 살펴보자.

대전에서 사는 2030 여성청년 13.6%, 자치구 중 유성구 14.9%로 가장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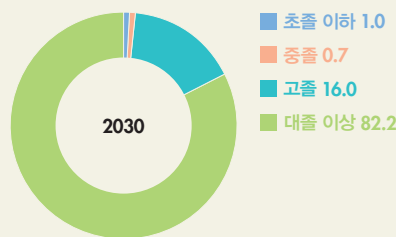
대전에 거주하는 20세~39세 여성청년은 대전시 전체인구의 13.6%를 차지한다. 20대와 30대는 각각 6.8%였으며, 자치구별로는 유성구가 전체인구 대비 14.9%로 여성청년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서 서구(14.6%), 중구(12.3%), 동구(12.2%) 순이었다. 여성청년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덕구에 전체인구 대비 12.0%로 나타났다. 대전에서 사는 2030 여성청년의 82.2%가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했으며, 20대와 30대를 각각 살펴봐도 대졸 이상(20대 82.7%, 30대 81.8%)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또한 ‘사무직’에 종사하는 2030 여성청년 비율은 34.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서비스 판매’(21.2%)가 뒤를 이었다. 20대 여성청년은 사무직(33.7%) 다음으로 학생(31.6%)의 비율이, 30대는 사무직(34.6%)에 이어 주부(33.0%)의 비율이 높았다.

대전 및 자치구 여성청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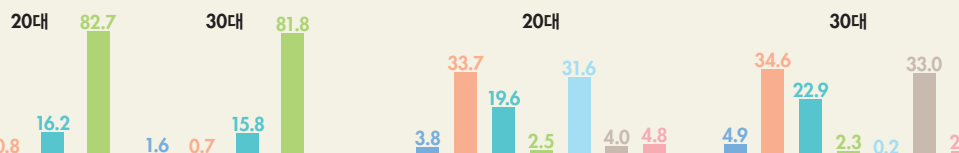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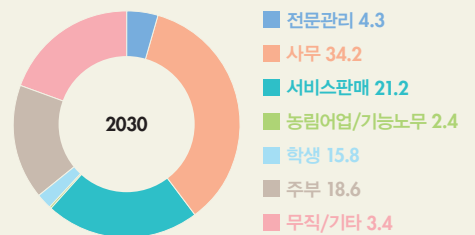
단위: %



학력



직업



발행처 대전세종연구원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발행인 박재욱
편집인 주혜잔
디자인 디자인스튜디오203 대전
발행일 2019. 8. 31.

*여성청년은 20세에서 39세의 여성을 말함
*여성청년 비율=여성청년인구(20~39세)÷총인구×100
*20대/30대 여성청년 비율=20대/30대 여성청년인구÷총인구×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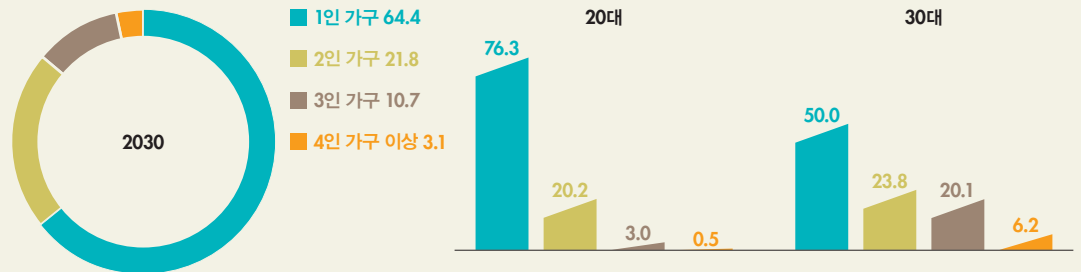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학력 및 직업 분석 시 가구원 가중치 적용
*자료: 대전광역시, 『2018 사회조사』 분석

대전 여성청년의 64.4%가 1인가구

가구원수별 2030 여성청년의 가구 분포를 살펴보면, '1인 가구' 비율이 64.4%로 가장 높았다. 뒤를 이어 '2인 가구'(21.8%), '3인 가구'(10.7%), '4인 가구 이상'(3.1%) 순이다. 여성청년 안에서도 20대와 30대 간 격차를 보였다. 20대의 '1인 가구' 비율은 76.3%로 30대(50.0%)보다 26.3%p 높았으며, 20대 여성청년의 '3인 가구' 비율은 3.0%에 그치는데 반해 30대는 20.1%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대전 여성청년 가구원수별 비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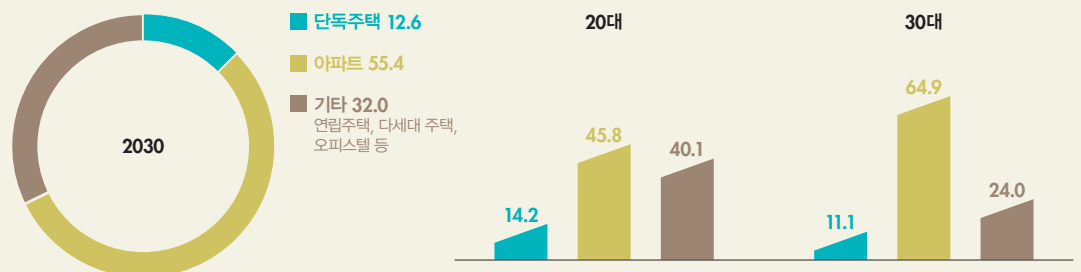


20대 여성청년, 연립주택·다세대주택·오피스텔 거주 비율 30대보다 높아

대전의 여성청년 55.4%는 아파트에 사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2.0%는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 등에, 12.6%는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20대와 30대 모두 아파트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수치에는 차이가 있다. 20대 여성청년은 아파트 45.8%, 기타(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 등) 40.1%로 기타의 비율이 아파트만큼 높았다. 반면 30대 여성청년의 아파트 거주는 64.9%로 다른 주택유형과 비교해 높은 비율을 보였다.

대전 여성청년 주택유형별 비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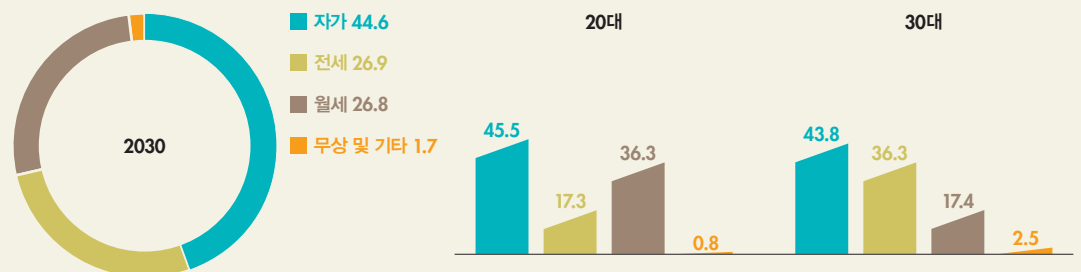


대전 여성청년의 절반 이상, 전·월세에 살고 있어

대전 여성 청년층의 주택 점유 형태를 살펴보면, 전·월세 비율은 53.7%(전세 26.9%, 월세 26.8%)로 여성청년 10명 중 5~6명이 전·월세에 살고 있다. 전·월세 비율은 20대와 30대 각각에서도 53.7%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전세와 월세를 분리해서 보면, 20대는 월세가 36.3%로 전세(17.3%)보다 비중이 크나 30대는 전세(36.3%) 비율이 월세(17.4%)에 비해 높았다.

대전 여성청년 주거점유형태별 비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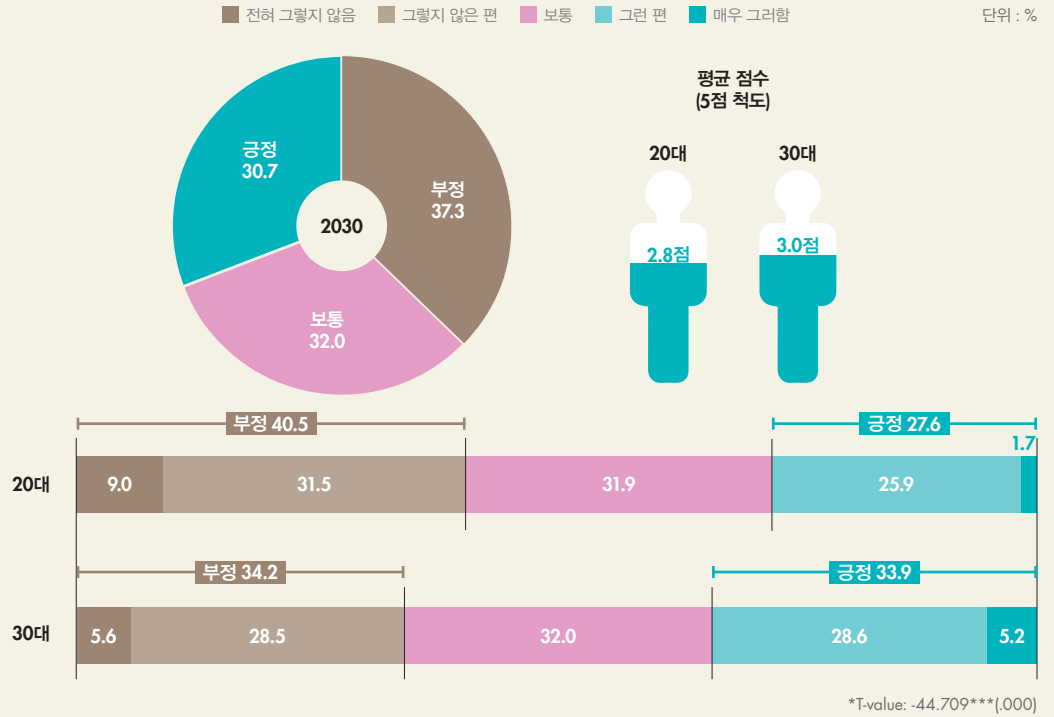
*여성청년은 20세에서 39세의 여성을 말함
 *주거점유형태에서 월세는 보증부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포함함
 *가구원 가중치 적용
 *자료: 대전광역시, 「2018 사회조사」 분석

여성청년들은 동네사람들에 대해 평소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안전한 거주환경 조성에 있어서 지역공동체는 중요한 요소이다. 대전 여성청년들은 주거공간을 중심으로 한 동네의 주민들, 그리고 그들과의 소통 및 관계 형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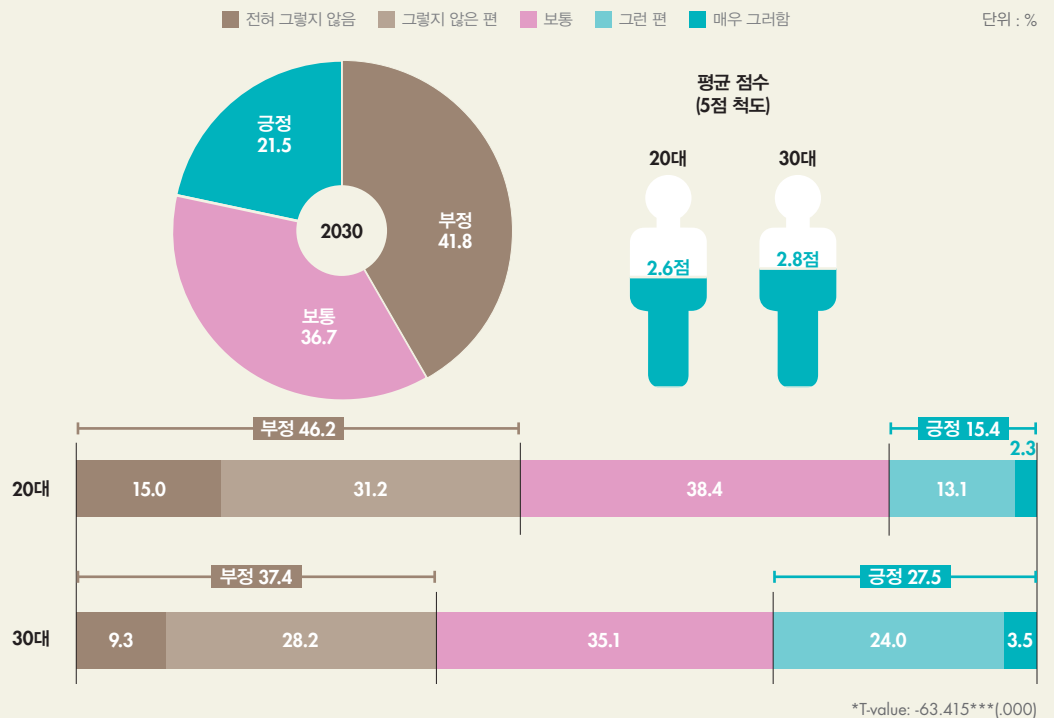
대전 여성청년의 안전 환경에 대한 평가- 서로 잘 알고 지내는 편이다

“서로 잘 알고 지내는 편이다”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2030 여성청년은 30.7% 부정적으로 응답한 여성청년은 37.3%로 나타났다. 20대 여성청년이 “잘 알고 지낸다”(27.6%)고 느끼는 비율은 30대(33.9%)보다 6.3%p 낮았다.



대전 여성청년의 안전 환경에 대한 평가-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자주 이야기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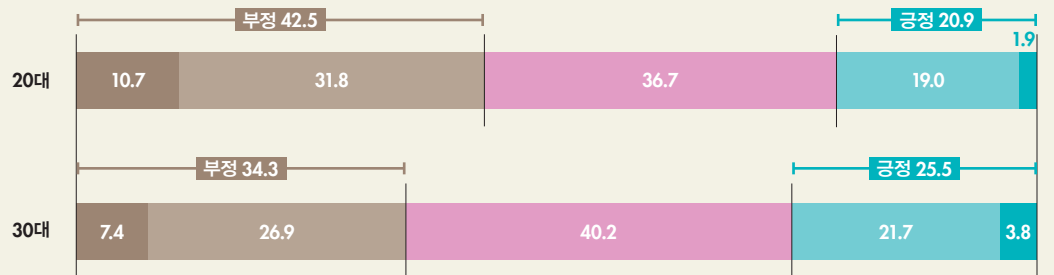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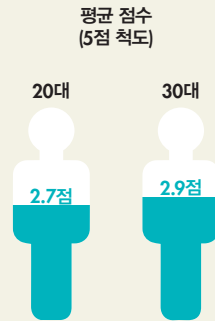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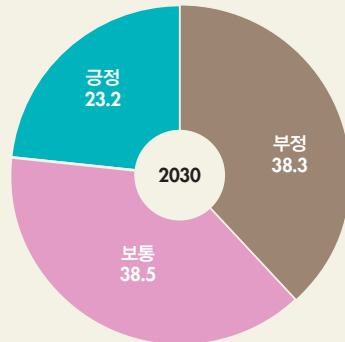
대전 여성청년의 21.5%는 사람들이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자주 이야기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41.8%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특히 20대의 15.4%만이 긍정적이었으며, 이는 30대(27.5%)보다 12.1%p 낮은 비율이다.



대전 여성청년의 안전 환경에 대한 평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잘 돕는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잘 돕는다”에 대전 여성청년 23.2%가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38.3%가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역시 20대(20.9%)의 긍정적응답 비율은 30대(25.5%)보다 4.6%p 낮았다.

■ 전혀 그렇지 않음 ■ 그렇지 않은 편 ■ 보통 ■ 그런 편 ■ 매우 그러함 단위 : %



*T-value: -42.471***(.000)

*여성청년은 20세에서 39세의 여성을 말함
 *5점 척도(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를 긍정(매우 그러함 또는 그런편), 보통, 부정(그렇지 않은 편 또는 전혀 그렇지 않음)으로 분류함
 *가구원 가중치 적용
 *자료: 대전광역시, 『2018 사회조사』 분석
 ※20대 여성청년과 30대 여성청년 간 '안전 환경에 대한 평가'의 차이가 유의미한지 알아보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함. 그 결과 세가지 안전 환경에 대한 평가 모두에서 두 집단 간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젠더 콜로키움 # 디지털 성폭력 # 뉴 미디어 _ 등장 # 불법 촬영물 _ 공유 # 여성 _ 일 상 의 _ 포르 노 화

제3회(통합 14회) 젠더 콜로키움, 맛있는 사고에 주름을 잡다
 '함께 그리고 홀로' 디지털 성폭력과 남성연대의 변화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는 여성 및 가족 이슈와 담론을 파악하고, 전문가 역량 강화 및 신진 연구자 발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젠더 콜로키움을 개최해오고 있다. 지난 8월 27일 열린 젠더 콜로키움에서는 『함께 그리고 홀로- 디지털 성폭력과 남성연대의 변화』라는 주제로 송실대학교 김소라 초빙교수의 발표가 있었다. 김소라 교수는 디지털 성폭력은 여성의 몸을 착취하는 것이 용인된 사회가 디지털 기술과 만나면서 가시화 된 것이며, 대상화된 여성의 몸을 분리된 공간에서 '홀로' 소비하지만 익명적 관계에 있는 이들이 '함께' 공유하고 소비함으로써 남성연대의 범위가 확장되었음을 강조했다. 또한 어떻게 디지털 성폭력이 재미있는 '놀이'와 돈이 되는 '산업'으로 자리 잡았는지 주목했다. 참여자들은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신속한 수사, 확실한 처벌, 유통 규제 등 법적 개입뿐만 아니라 여성의 몸을 대상화하는 남성연대와 문화 모두의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김소라_송실대학교 정보사회학과 초빙교수